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이종태



얼마 전 광주시 북구 두암동 같은 골목에서 두 개의 구멍가게가 문을 닫았다. 하나는 칼국수집으로, 다른 하나는 호프집으로 상호를 바꿨다.

십수 년 동안 골목을 지켜온 이들 가게가 사라진 것은 지근거리에서 세곳의 대형 유통매장이 들어서면서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업형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또 다른 괴물이 골목가구에 파리를 틀고 목줄을 조여오고 있다.

SSM은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들보다 파괴력이 훨씬 커 '골목 상권'에 더 위협적

인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법상에서 개설신고만으로 입점이 가능한데다, 대형 부지에 비해 입지조건이 수월해 업적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

SSM은 1천650~2천650㎡(500~800여평)의 규모의 몸집을 더 얇아 골목을 해집을 태세다. 아예 골목을 초토화시키겠다는, 해도 너무하는 처사다.

지난 1996년 출점하기 시작한 SSM은 지난해까지 480개에 불과하다가 올 말에는 7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뜨뜻미지근하기만 하다. SSM의 기하급수적인 확산에 따

라 전국 각지의 골목이 들고 일어나자, 마지못해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허가제를 통해 입점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숙고해야 한다.

물론 SSM이 들어서면 소비자가 편리해지고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수도 있다고 본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SSM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시장경제논리에 어긋나고

뒤늦게나마 다행스럽다. 지난 27일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에서는 총장로·상무·첨단지구 등 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바닥면적 1천㎡ 이상 할인점 등 대형 유통점의 입점을 제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가 대책마련 나서야

SSM과 관련, 정부는 28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구체적 규제기준을 지자체에 위임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나 현행 법률로도 마땅한 규제방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각종 압력에 약한 모습을 보여온 지자체들이 제대로 된 처방전을 만들어낼지 의문스럽다.

엄청난 자금력과 네트워크로 무장한 SSM이 강력한 로비를 할 경우 버틸 지자체가 얼마나 될까, 현 상황보다 후퇴할 수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 '뜨거운 감자'를 지자체에 떠넘길 게 아니라, 관련법률을 제정하는 등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사회 2부장> jilee@kwangju.co.kr

'골목 상권' 살려라

소상인 목줄 죄는 SSM

불안한 심경은 이들 구멍가게 뿐만이 아니다. 1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660여㎡(200여평) 규모의 한 중형마트도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직원들 월급주기도 빠듯하다"며 "이러다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겠다"는 점주의 하소연이 얼얼한 아닌 듯하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 도심 곳곳에서 '골목 상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골목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들의 왕성한 '식욕' 때문에 이미 곤경에 처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SSM(Super Supermarket·기

소비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적 소송에 나서려는 움직임은 보이는 것도 일견 이해가 간다. 그러나 '상생'을 부르짖고,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는 대기업들이 소상인의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나 국내법에 위반된다며 규제책 마련에 대해 너무 좌고우면하지 말고, SSM의 영업시간이나 품목까지 제한해달라는 소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광주시의회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SSM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제정에 나서

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질서와 선진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광주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로 민주도시, 인권도시, 평화도시로 상징되는 광주정신의 자랑스런 시민들의 삶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광주가 교통사고 전국 1위라는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비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우리 시민들도 교통질서를 지키는 일부터 시작하여 노력해 나가야 한다.

셋째, 광주가 가장 한국적인 멋과 맛과 풍류를 가진 도시로 아시아문화 소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질서와 선진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광주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로 민주도시, 인권도시, 평화도시로 상징되는 광주정신의 자랑스런 시민들의 삶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광주가 교통사고 전국 1위라는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비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우리 시민들도 교통질서를 지키는 일부터 시작하여 노력해 나가야 한다.

셋째, 광주가 가장 한국적인 멋과 맛과 풍류를 가진 도시로 아시아문화 소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박홍근



1980년대에는 낮은 가격이 경쟁전략이었다면 1990년대는 차별화를 통한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시되었다. 앞으로는 디자인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다.

디자인이란 결코 눈에 보이는 겉모양인 상품의 디자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설계, 의장, 도안, 구성, 무늬, 계획, 기획, 구성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한편으로 디자인은 국가 경쟁력과 기업 이윤 극대화의 핵심이자 우리 삶 속에서 행복을 주는 가장 중요한

고, 이 미술관은 '빌바오 효과'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만큼 몰락하는 빌바오의 지역경제 부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미술관 하나를 세웠을 뿐인데... 세계를 매혹시킨 잘 디자인 된 건축에 잘 디자인된 콘텐츠를 가미하여 빌바오를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디자인 마케팅 전략은 타 도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색해줄 때가 크다.

광주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준비

'광주 효과' 출발점으로

가치로도 쓰이고 있다.

잘 디자인된 건축물과 멋진 인테리어로 구성된 공간에서 먹는 한 끼의 식사는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을 제공한다. 맛있는 음식과 멋진 공간 디자인이 마음속 깊이 행복한 추억을 남기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상이 온통 디자인을 외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처럼 디자인에는 '삶의 작은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도시 경쟁력에 커다란 분수령을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빌바오 효과'라는 말이 있다. 거의 폐허가 된 스페인 항구도시 빌바오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탈바꿈 시킨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1997년 10월 개관한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은 미국출신 세계적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가 디자인한 건축물로, 매년 1백만 명이 달하는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전해진다. 빌바오는 미술관 하나로 도시의 경쟁력을 기적으로 키웠

중에 있다. 우여곡절 끝에 설계가 완성되어 공사가 시작 되었으나 지지부진하다. 원인 논의는 접어두고 건축과 도시 공간구조로 볼 때 현재 문화전당 건축 디자인은 과거 1980년 5월의 역사현장인 구 전남도청과 미래의 역사가 될 전당공간이, 유기적이고 상생 관계로 잘 디자인되었다고 본다. 광주도 빌바오처럼 잘 디자인된 문화전당에 독특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담아 '광주 효과'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는 없을까?

5·18과 문화전당의 본질은 무엇이고, 5·18과 문화전당이 시민과 사회를 위해 어떠한 존재여야 하며, 그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창출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자. 그리하여 이상적인 문화전당을 만들어 보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상적인 문화전당 실현하기위해 시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전략적 판단을 기대해 본다.

<건축사·2004년 12월 수상자>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기고

김덕모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U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2015년 제 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소속 170개국 1만 3천여명의